

제 목	개구리가 원하는 여행		
소속 대학	정보과학대학	소속 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주전공:임상의학통계
학 번	2023****	이 름	최*진

개구리가 원하는 여행



-꼭지탕에 개구리 죽는다.

나의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의 시간은 아직도 5년 전에 멈춰있다.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을 때이다. 중학교 3학년이 지나고 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결국 내 기억 속의 추억 여행은 '제주도 수학여행'이 되어버렸다.

여행 가기 전 들떠있던 나의 10대 시절 설렘의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줄은 몰랐다. 친구들과 뭘 하고 놀지 몇 날 며칠을 재잘거리며 고민하던 순간들, 비행기를 처음 타는 친구들과 '비행기를 탈 때는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어야 한다.'는 우스꽝스럽고 어이없는 이야기들, 예쁜 사진을 찍고 싶은 욕구로 새 옷을 준비하던 순간들이 나를 추억여행으로 떠나게 한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완벽할 줄 알았던 나의 수학여행은 결국 아쉽게 마무리되었다.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속상하게 자리 잡고 있기에, 단체 여행에 이미지는 안 좋다. 시작은 좋았으나, 정작 단체여행은 계획된 틀 안에서의 움직임이 주는 답답함이 있었다. 좀 더 구경하고 싶었고, 친구와 멋진 사진도 찍고 싶고, 기념품도 여유롭게 구경하며 사고 싶었지만, 정해진 계획대로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이 와중에 친구와의 사소한 의견 차이로 다툼이 생기면서 즐거울 것만 같던 수학여행에 먹구름이 끼었다. 버스 자리가 정해져서 항상 이 친구와 남은 여행을 해야 했고, 여행하는 동안 어색해져서 내내 불편함에 즐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있다.

-우물 안 개구리.

핑계인 걸까? 코로나가 나를 집 안에 가둔 동안, 난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아버렸다. 마지막 여행을 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한동안 친구들과 여행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느껴졌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여행에 대한 관심을 잃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때 같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함께 갔던 몇몇 친구들의 근황을 보게 되었는데, 이곳저곳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다.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친구들의 여행담을 보고, 들으면서 여유 있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대학생이 된 지금, 여행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중3 수학여행이 겨우 나의 추억인 걸까?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생각하게 되었다. 새롭게 여행을 통해 무언가를 찾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여행을 가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한데...’ 이걸 핑계인 건가? 지금 누구와 어떤 여행을 할지조차 생각을 안 해보다니,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현재 상황에만 머물고 싶어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도대체 난 뭐가 두려운 걸까? 방안에 작은 공간에서 컴퓨터나 핸드폰 속의 세상으로만 소통하는 게 익숙해져 버린 나를 또 발견한다.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넓고 자유로운 세계를 탐험해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계기를 마련해 본다. 지금 내가 대학교 기숙사에 머물러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우물 밖 세상으로 나서봐야겠다. 지금 당장, 가까운 춘천댐, 가평 남이섬, 아침고요 수목원 등 나만의 ‘소확행’을 할 수 있는 곳부터 찾아 나서야겠다.

-개구리도 움 쳐야 뚝다.

언젠가 창밖의 세상을 보며 더 넓은 세계를 꿈꿔본 적이 있는가? 여행도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는 순간이다. 5년 전 수학여행에 머물러 있기엔 지금은 많은 것들이 달라진 상태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나를 잠식해 버린 건 아닌가? 이제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 어디든 여행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여행이란 지금까지 나에게겐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남들이 하는 분위기를 따라 한다는 숙제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나를 찾아가는 ‘소확행’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꿈이 생겼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살아 있다’라는 느낌이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라면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안고 살아가는데, 여행이야말로, 그 욕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아닐까?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날개가 필요하다. 자유로운 날개가 되어줄 여행은 틀에 갇힌 나를 움직여 꺼낼 수 있는 기회이며,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것만 같은 기대를 하게 된다. 여행은 나에게 어떤 경험을 줄까?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해 보자!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나를 알아내기 위해, 우물 밖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생각을 하니 뭔가 설렘의 꿈 꾸는 나를 발견한다.

주말엔 엄마와 함께 내가 세운 계획을 가지고, 춘천 여행을 가야겠다. 이번 여행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든 맘먹은 대로 해낼 수 있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한 경험의 첫걸음이 될 것만 같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나에게 용기가 필요한 우물 밖 변화를 시도해 본다. 미래에는 여행이 뭐가 좋은지 몰랐던 나에게 여행이 왜 좋은지 경험해 보고 알아냈을 내가 있길 바란다. 세계여행을 다니고 있을 나를 꿈꿔본다.



사진 출처:

개구리그림

https://kr.freepik.com/free-vector/hand-painted-adorable-frog-illustration_13818558.htm#fromView=image_search_similar&page=2&position=16&uuid=5ee7778f-a9c2-4eb6-8fc2-c04c36c659ff

배경그림

https://kr.freepik.com/free-vector/hand-drawn-colorful-travel-background_16137796.htm#fromView=search&page=3&position=3&uuid=b799ba4b-0973-46fb-8e67-91ce6a9e2d4f

나머지 사진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자료:

인용한 말 - 문묘한 『여행하는 인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살아 있다’라는 느낌이다.”)